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3호 【루게 제 24851호】 주체 104 (2015)년 3월 14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5월 27일 수산사업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5월 27일 수산사업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황명서 동지, 서흥찬 동지, 김정관 동지와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동해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5월 27일 수산사업소는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현대적인 원양수산사업소이다.

총면적이 5만 5,140여㎡에 달하는 5월 27일 수산사업소는 23만 3,700여㎡의 성토를 진행하고 4,000여개의 중량부재, 네뿔부재로 날바다를 막아 부두와 방파제, 호안, 상가대를 건설하며 뿔동시설, 가공장, 합숙,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을 일떠세워야 하는 규모와 공사량이 있어서 방대한 건설대상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펼쳐나신 군인건설자들은 많은 량의 성토와 부두, 방파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총공사량중에서 제일 어려운 계선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고기는 가까운바다에서도 잡고 먼바다에서도 잡으며 나가면서도 잡고 들어오면서도 잡아야 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5월 27일 수산사업소 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날자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끝내기 위해서는 건설력량을 더 증강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에서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하여 현지에 파견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 당위원회에서 5월 27일 수산사업소 건설에 대한 립장과 관점을 바로가지고 건설력량편성으로부터 전개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화선식당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으로써 군인들이 건설장에 위훈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원양수 산사업소를 건설하자면 애로와 난관도 많을것이라고, 하지만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돌격대인 인민군대에 건설을 맡기였기때문에 마을이 높인다고, 우리 당창건 70돐까지 공사를 무조건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보여주자고 호소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최고사령관 동지께 완공의 자랑찬 보고를 드릴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다고, 원양어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는데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5월 27일 수산사업소는 원양선단들을 내보내어 물고기를 잡아오는것과 함께 물고기를 저장, 가공하는 기지인것만큼 그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잘 건설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5월 27일 수산사업소를 훌륭히 일떠세우자면 큰 배들을 여럿씩 현측계류할수 있는 부두와 방파제, 물고기부림과 저장, 가공을 원만히 할수 있는 각종 시설물들은 물론 어로공들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청사와 회관, 합숙,

편의시설, 살림집 등 모든 대상들을 먼 후날에도 손색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설을 다그치자면 방파제를 비롯한 해상공사와 물고기가공장 등 지상공사를 립체적으로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재보장을 비롯하여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5월 27일 수산사업소 건설이 끝난 즉시 먼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을수 있도록 수산사업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우리 식의 원양어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부터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의 벽찬 숨결이 안겨오도록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림으로써 건설장전역이 불도가니 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며 군인들의 후방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에 국가방위와 관련한 중대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5월 27일 수산사업소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고



모든 단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체신부문에서 앞서나가게 된 비결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

순천시체신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체신소의 직무적인 지지에... >

생기는 자신감이든 그 무엇이든... >

이것 일군들이 기술자들의 사업에서 놓치지 않고... >

되고 체신설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서... >

인재화실현의 중요한 고리

오늘 우리 당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누구나 진지하게 사색하고 탐구의 열정으로...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누구나 진지하게 사색하고 탐구의 열정으로... >

왜 융착기제작을 선택하였는가

무슨 일에서나 자신심이 없으면... >

있었다. 체신부사를 시대적요구와... >

이렇게 놓고볼 때 이곳 일군들의... >

고 전투력이 강하며... >

중요한 것은 자신심이다. 남포항의 한 4.15 기술혁신... >

중요한 것은 자신심이다. 남포항의 한 4.15 기술혁신... >

중요한 것은 자신심이다. 남포항의 한 4.15 기술혁신... >

중요한 것은 자신심이다. 남포항의 한 4.15 기술혁신... >

기술혁신목표와 제품의 경쟁력

전국적으로 소문난 2조본기... >

관경대애국 농상공장에서... >

야 하는 기술과제가 제기되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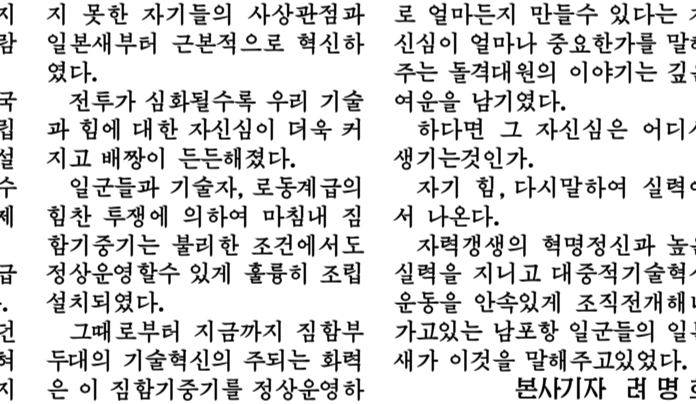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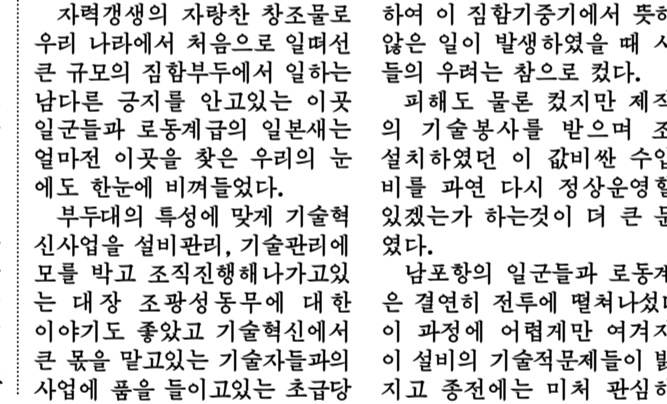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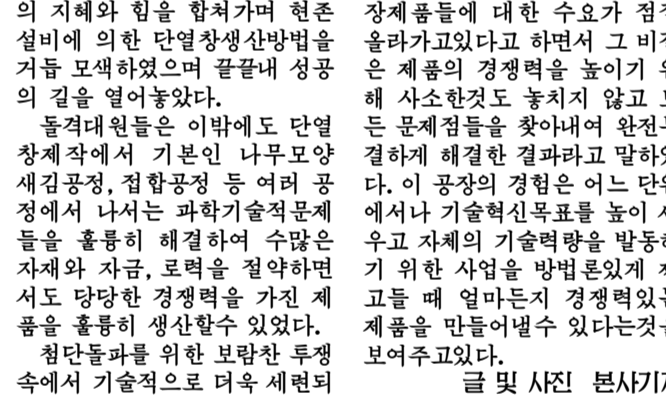
제 공장의 현대화와 생산성향... >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

중요한 것은 자신심이다. 남포항의 한 4.15 기술혁신... >

중요한 것은 자신심이다. 남포항의 한 4.15 기술혁신... >

중요한 것은 자신심이다. 남포항의 한 4.15 기술혁신... >



미국과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북침합동 군사연습을 저지시키고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성명... >

지금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해방... >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을 비롯한... >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날로 확대... >

우리 겨레의 반미반전투쟁기... >

괴뢰패당을 전몰케 하는 반박근혜베라살포투쟁

본 노한 남 녀 민심 분출을 살상시 뒤집다... >

남조선에 망하게 할 너자라는... >

베라가 살포된것이며 이것은 결국... >

그러나 남 <정권> 집권 초반... >

최근 남조선 각계층은 <과거... >



반공화국정신착란증에 걸린 미제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최대로 악화되고 있다.

지금 미제침략군의 폭, 해, 공군작전집단들과 남조선피괴군의 방대한 무력이 참가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평가를 띠고 강행되고 있다. 일본과 광도 등에 전개된 미군부대의 출전태세를 갖추고 침략의 선전대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경우 즉시 조선반도에 쏟아져내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핵전략적으로 우리의 핵과 미사일기지를 비롯한 주요군사적기지를 무력화하고 우리의 수뇌부에게, 《평양연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복잡핵전쟁연습이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당이 《전례적》이며 《방어적》이라고 부지런히 입방아를 찧고 있는 것은 불에 실전에도 이행하려는 자들의 작전적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체계로운 광고에 불과하다.

남조선의 지상, 해상, 공중과 우주, 싸이버공간까지 포함하여 5대영역이 살벌한 전쟁연습무대로 변화하였다. 조선반도정세는 또다시 예측할수 없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핵전쟁을 도발하여서라도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자는것이 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여놓은 미제의 흉악한 속셈이다.

이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우리 민족의 머릿수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무기는 최근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 다시한번 뚜렷히 확정되었다.

우리 공화국을 옹호해 들어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과 남조선피괴당이 무도한 핵전쟁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행동을 그만둘데 대하여 여러차례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미군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정책과 전쟁행동을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져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의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어떤 문제도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우리는 오바마가 《쓰니 픽처스》영화제작보급사가 당한 해경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면서 년초에 추가제제를 가하는 대통령행정명령을 발동하였을 때에도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모든 적대행위를 무조건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것은 올해에 어떻게 해서나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성의와 아량의 표시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충고와 경고를 무시하고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끝낼내 강행함으로써 복잡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국의 무모한 책동은 우리의 평화호적노력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주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우리의 자제력과 인내력에 한계가 있다. 우리 민족의 머릿수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주기 위해 리성을 잃고 날뛰는 미국의 어리석은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무모성과 엄청난 반공화국정신착란증에 걸린자들의 집합체인 오바마정권이 강행하는 전쟁불장난이래는대이다.

오바마정권은 집권초기 반미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할것처럼 오만한가 선전하며 세계 곳곳에서 평화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될것이라고 담담한 나팔을 불었다.

오늘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되었다. 조선반도와 중동, 우크라이나 등 여러 지역과 나라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분위기에 휩싸여있다. 오바마정권이 몰아온 엄청난 사태이다.

초기에 《평화호호자》로 행세하던 오바마는 이제 와서 그 말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분별력과 자제력이 티끌만큼도 없는 정신병자의 징계를 저러라게 드러내고있다.

미국의 역대 집권자들중에는 포악성과 무모성으로 악명을 떨친자들이 적지 않지만 오바마처럼 인격도 체면도 다 제버리고 제가 직접 나서서 한 주권국가에 대해 《하루빨리 붕괴되어야 할 나라》라고 악설을 내뱉은 경우변화자같은 집권자는 없었다. 오바마는 우리에게 대한 적대감에 환장이 된 나머지 완전히 미쳤다.

지금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오바마의 날강도적인 껌내대로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는데 총집중되고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각 기구들과 각종 정당모략기구들, 출판전력 및 정책연구소들이 떨쳐나서 우리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분별을 잃고 날뛰고있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바로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정책실행의 군사적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오바마만이 미친것이 아니다. 오바마정권내에서 중추를 이룬다고 하는자들 파반수가 정신병자들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대외정책실행을 해도 치러왔다고 하는 국무장관 케리는 주권국가의 수반이나 외교간담자들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인신쓰레기들과 더 잘 어울리기 좋아하는 자이다. 주권국가의 정당당당한 주장은 전혀 들리지 않고서 집들 꿰차나간 듯 개와 같은 자들이 마구 짓대는소리를 유행가처럼 즐겨 듣는 케리는 제 몸값이 그 개구리들과 한자음을 올려놓아도 별로 차이가 없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이었다.

얼마전에 한 《탈북자》가 우리 공화국을 헐뜯는 자기의 증언이 완전히 허위였음을 솔직히 자백하는통에 국제무대에서 큰 망신을 당한것과 다름이내 케리이다.

헤이글을 대신하여 미국방장관자리에서 올라왔은 에슈튼 카리는 핵전쟁광신자이다. 1994년에 우리의 평화적책시책이 있는 주요지대를 겨냥한 폭격계획을 세웠고 2003년에 《북조선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릴수 없다.》고 꾀치며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한것도 바로 이자이다. 침략의 전쟁터에 끌려나가 가족음을 당하는것이 두려워 군사부문을 기피한 주제에 감히 우리를 어찌 보지도고 떠들어대는 카리는 신봉토도된 무서운물 모르고 날뛰는 하루가지기 그대로이다.

오바마정권에는 이런 미치광이들만이 도어들었다. 세계언론들이 오바마정권을 두고 《위성톤의 정신병원》이라고 평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런 전쟁미치광이, 새롭게 변모된 조미사회의 력학적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정신병자와 마주앉아 상충했듯이 의사가 전혀 소용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미국과 대화한다는것은 허무한 시간낭비이고 우리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남조선은 국통최대의 핵전쟁화약이고이다. 반공화국정신착란증에 걸려 리성을 잃고 날뛰는 미국은 언제 더질지 모를 이 위험한 곳에서 무모한 불장난을 하고있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는 핵전쟁발발의 문이구여 놓여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무모성과 엄청난 도한 지수에서 더는 존재하기를 포기한 타락한 악마세력의 최후악작음부름포리라는대이다.

미친것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가리지 않고 눈에 피발이 서서 덤벼든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날뛰고있다.

히스테리발작증세를 심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파쇼도이힐란드의 악명높은 히틀러는 제 죽음을 모르고 무모하게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였고 또 배틀이 합력전면으로 자살한것에 알려졌었다. 그런데 오바마정권은 보면 력사의 웅대한 징벌을 받은 히틀러와 그의 히수인들이 부활하여 오웰의 미국대통령되리라 그 수하요직들에 올라갈지 않았는가 하는 환상이 들 정도이다. 오바마정권이 조선반도에서 제3차 세계대전, 새로운 핵대전의 불길을 지펴올리지 않으리라는 담보도 그 어디에도 없다.

핵전쟁은 유희가 아니다. 미국이 핵전쟁에서 살아남아 승리자로 될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백지, 천치의 망상이라고 할수 있다.

《무기만등은》에 물젖은 미국은 올해초부터 남조선에 첨단무장장비들을 연속적으로 들이밀고있다. 미제침략군 7함대소속 이지스수속함 《머스틴》호와 《토마호크》미사일을 장비한 핵잠수함 《울림피아》호를 비롯한 대형정투함함선들을 새로 투입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공격연습에 미쳐달려있다.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는 조선반도 주변의 해저지형에 맞게 건조된 연전투함 《포드위스》호를 비롯한 방대한 전투수단들이 동원되고있다.

아무리 첨단무장장비들을 많이 동원한다고 하여도 미국은 우리의 대결에서 패배의 운명을 절대로 면할수 없다.

패배는 미국의 법칙적인 전통이다. 그 법칙을 어길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백두산총대의 승리의 전통은 적들의 《무기만등은》을 사상과 정신의 위력으로 타승한 위대한 전통이다.

뜨거운 사랑과 혈연적인 정으로 맺어진 최고령도자와 원만군인사회의 혼연일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굳건한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화폭이 매일과 같이 펼쳐지는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사상과 도덕으로 만장약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억누를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미국의 전쟁명사에 중국적멸망의 새로운 페이지를 우리 세대가 써줄것이라는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얼마전에 있는 적해상목표에 대한 곤궁타격훈련과 최첨단수중에서 개발된 신형반함선로켓미사일발사 등은 우리 혁명무력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을 세계에 독특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병전로선에 대해 두가지를 함께 할수는 있을것이라고 지껄이고있지만 우리는 세계가 보란듯이 핵무력전력과 경제강국건설을 다같이 힘차게 밀고나가고있다.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제제를 가하고있는 미국의 기도와는 다르게 조선의 경제형편은 나빠지지 않았으며

반대로 최근년간 상승세를 타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사실은 우리 병전로선이 이룩하고있는 빛나는 결실들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인정하고있는것을 실증해준다.

남로 강화되는 우리 나라의 국력은 핵무력건설과 경제강국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가는 독자적인 병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오늘날 총체적붕괴상태에 빠져들고있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이다. 오바마일당은 그로 하여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자기 집권기간에 우리의 《변화》와 《붕괴》를 실현해보겠다는것이 오바마정권의 꿈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개공으로 되고있다. 《압박》과 《대화》라는 《두길전략》에 매달려보았지만 통하지 않았다. 심리모략전과 사상문화침투, 모략적인 《인권공세》로도 우리를 어찌지 못하고있다.

우리에 대한 병적거부감과 체제대결에 환장이 되어 머리털을 잡아 뜯으며 모자를 쓰던 오바마일당은 얼마 전부터 도망사퇴하지 않자 이제는 미국을 중국적멸망에 빠뜨릴수 있는 핵전쟁소동을 일으키며 지랄발광하고있다. 미친 무리라는 말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오직 군대로 무자비하게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원하고 맥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대응해줄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 최후발악하는 흉악한 남조선도미제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조공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참변을 악의 총본산인 미국본토에서 몸서리치도록 맞고해 줄것이다.

그때에 가서 미국은 골백년 후회해도 필요 없다.

미제는 반공화국정신착란증에 걸린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악의 군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리 경 수

친미에 미쳐돌아가는 북동주구들의 언거울 추태

식민지 하수인들의 치졸한 《총복》 광대극

《불치의 병》으로 진단받고있는 남조선피괴들의 《총복》광증이 미국대사정법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발작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총복세력구권민대결》이 워니 하는 반공화국대결광대극들이 끊이지 않고 국우보수의 산송장들이 무덤속에서 되살아난 기분을 들며 무리시을한북편에 뛰어나와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히스테리격격자를 부리고있다.

그서막을 엮은는 다름아닌 청와대안당주인이다. 당시 중동행각에서 인민 피괴집권자는 즉시 줄겨달에서 사건을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배후를 밝혀내라고 다 불렀었다. 그리고는 미국대사 리퍼트에게 무슨 《위로전화》라는것을 걸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괴집권자의 독살을 시작으로 남조선전역에서 광신적인 《총복》소동의 불이 달랐다. 《새누리당》에게서 사건을 《총복에 대한》서술로 규정하고 이 당대로 김무성은 남조선에서 《테로세력》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기업을 토하면서 《공민력확립》과 《배후세력쇄살》을 제창해나섰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로 피괴피괴에서는 《복을 도와주는 테로》라는 《총복》연인이 공공연히 튀어나왔다. 집권자의 지령에 맞춰 대책론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6일 김기야가 《새누리당》과 피괴행정부, 청와대를 우두머리들이 모여 고위급협

의회라는것을 열었는데 여기에서도 《동맹의 심장을 겨누는 끔찍한 사건》이니,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니 하는 살기만 주장하며 튀어나와 스산한 《총복》소용돌이를 예고하고있다. 특히 《새누리당》에게 거러들은 《총복세력의 집단적 단말파》니, 《평양과 맥을 같이하는 특정세력소행》이니 튀니하며 악정을 들추고있다. 집권자의 의해 피괴집보원장으로부터 청와대비서실장으로 등용된 리병기는 그 무슨 인본보장회이니, 고위급협의회니 하는에서 《행형과 그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미전부터 작정하고 기다리거나 한듯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어 《총복》으로 규정해놓는것이다. 여기에 보수언론들과 매문가들이 여론을 어지럽히며 합세하였다. 피괴 《문화일보》를 비롯한 보수매체지들은 《테로까지 자행한 총복, 누가 키우고 비호해왔다》, 《법인의 반미, 총복행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배후세력전제어부 구성》 등으로 《총복척결》을 선동하고있다. 지어 통합진보당해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해리책성이 확인된 《총복》단체가 61개인으로 비밀활동 등을 벌두어 두면 그것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여론화하고있다. 인터넷들에도 김기종의 배후라고 하면서 반전, 평화, 통일운동을 벌리는 진보단체들의 이름이 걸려되는 등 무차별적인 비방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런 속에 피괴집권은 검사 15명을, 경찰은 악명높은 반공보수사단들의 장제들을 동원하여 70여명이 넘는 대규모경정수사본부를 조직하고 김기종의 증거와 사실에 대한 수색과 《총복》압수를 진행하였다. 이미 김기종은 살인미수와 의외관폭행, 업무방해라는 혐의를 구속된 상태이다. 그러나 피괴집권과 경찰은 사건을 《보안법》상의 《범죄로 몰아가고모략적인 수사를 벌리고있다. 수색과정에서 인본과 인쇄물 등과 관련한 의적포함물과 찬양, 고무제품 들의우러고 무진 예를 쓰고있는것이 바로 그렇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피괴집권과 경찰이 집권자가 어찌든 선을 파고 의도적인 《총복몰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비난이 그칠새 없다.

미국은 미국상선이 피괴들의 우둔한 격기에 상당히 난처해한다는대이다.

미국은 최근 일본의 과거죄와 관련하여 일본을 무도하고 피괴들을 멸시한 미국무성정서부판의 망언으로 남조선에서 반미기운이 높아지고있다는것을 결코 모르지 않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므로 남조선정법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은 이번 사건을 김기종 일개인의 불법적인 공격사건으로 선을 그으면서 그것이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피괴집권과 《어이인 리합》이 내, 《교양제전우회》니 하는 국우보수의 산송장들은 이태다

하고 서울북편에 쏟아져나와 《총복척결》을 해주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극악무도한 광대극을 펼칠 버려놓을도 안다. 《총복》광대극이 펼쳐놓아는 하수인들의 망명이 일어난다는 말은 김기종이 사건당시 《합동군사연습중단을 위한것을 기화로 삼고 《개인이 저지른 단발성사건을 파도하게 정치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사대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내용의 쓸쓸한 비난기사를 실렸었다. 《새누리당》에서조차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행위이며 그것을 《지나친 마녀사냥이나 총복몰이로 활용》한다면 도다른 《국단적인 역풍》이 일어날것일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있다. 한강에서는 반미와 리정반대의 갈채를 받은 리정삼이 《총복소동에 미친 국우보수세력들의 발길에 채워 서술공포에 마구 나그들며 두벌죽음을 당하고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한 심기에 어느 아랑곳없이 피괴매당이 히스테리적으로 《총복광대극》에 매달리는 리유는 무엇인가.

지금 피괴들은 이번 사건이 남조선척결《동맹강화의 계기》가 될것이라고 갖은 야망을 떨고있고서 주되는 리유는 심화되는 집권위기를 모면하려는 데 있다. 지지율이 20%이하로 오까지 떨어지며 최악의 위기에 몰린 피괴집권자는 이번 기회에 당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총복소동》으로 발터 리려 하고있는것이다. 나아가

지난 5일 서울의 한북편에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리퍼트가 칼세례를 당한 사건은 위험천만한 복잡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여놓으면 서 북남관계를 파괴적으로 몰아가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는 미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반미감정의 폭발이다.

이로 하여 제일 바빠있는것이 피괴보수세력이다. 최근 과거사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을 편들고 남조선을 공격한 미국무성 정서부판의 망언으로 반미기운이 고조되고있는 속에 미국대사정법사건까지 일어나자 다급해난 피괴들은 친미역적으로서의 본성을 날남이 드러냈다.

피괴매당은 제 해네비가 변을 당한것처럼 분부방을 피휘대면서 차마 눈을 뜨고 보지못할 정도로 비굴하게 놀아났다.

중동지역을 행각하던 피괴집권자는 무서운 큰 벌이나 난듯이 리퍼트에게 전화를 걸어 《조속한 회의를 바란다.》, 《조선반도에서 남조선척결》이라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해줄것이다》느니 튀니 하며 야망을 떨었

면서 병원앞에서 단식을 벌리는 사람웃기는 추태까지 부리었다.

한편 피괴보수언론들은 저저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미국대사의 처신을 극구 선양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역스러운 기사들로 지면을 어지럽히면서 김기종을 《테로분자》로 모독하고 《총복세력척결》을 미친듯이 선동하였다.

미국대사정법사건을 계기로 남조선에 펼쳐진 이러한 현실은 그야말로 민족적수치로서 숭비사태와 곰피골출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성을 쫓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화책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독소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생각하는 한시도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조선의 친미사태미국자들은 이번 미국대사정법사건과 관련하여 수지도 상피도 모르고 감개빠진 망동을 부리면서 민족을 망신시키고있다.

이런 더러운 매국역적들이 살면치없는 남조선이 오늘도 지지점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로서 세상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당하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한 일이다.

본사기자 심철영

삼살개들의 아양에 격분하는 민심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리퍼트가 한 주된으로부터 칼세례를 당한 이후 피괴집권세력은 물론 친미에 환장한 어중이떠중이들은 불난지니 머리의 싸대뽕물들바를 몰라하며 역겨운 추태를 부리고있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나 미국에 고보이려고 체면도 없이 저저마다 아첨을 하는 그 물들은 차마 느르고 볼수 없을 정도이다. 그것이 얼마나 창피스러웠는지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친미분자들의 추태를 비난조소하고 미국을 단죄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터져나오고있다.

해가를 행각중인 피괴집권자가 《위로》니 튀니 하고 너스레를 펴며 들어오는 걸로 리퍼트가 입원한 병원을 찾은 사실, 여야당대표들이 리퍼트를 명문안단타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운 사실 등은 남조선의 인터넷가입자들과 언론들, 각종 인민들의 조롱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한 인터넷가입자는 《도대대 미국대사 피괴집권자면 벌써나 주검을 떠는가?》, 《너부터 위서 이 땅을 떠나겠다.》는 내

용의 글을 올리였다. 다른 가입자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리 민족이 소중한가, 미국인이 소중한가?》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런가하면 《악행을 일삼던 미국의 얼굴에 금이 갔다.》, 《같이 아닌 폭탄을 들었어야 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부드러운 칼집》도 못 막는 미국》 등으로 야유조소하는 글들도 올라 이목을 끌었다.

한 인터넷가입자는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초보로도, 평화시위로도 막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방법은 미국에 한방이 여주는것이다.》라고 하면서 리퍼트를 징벌한 주민의 소행을 지지하였다. 한 진보단체원자는 미국대사의 얼굴에 상처가 조금 남겼으므로 하여 《사회에 환기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사회적 절하는 등의 짓거리들이 백두에 벌어지고있다.》고 개관하였다. 그러면서 《총복과 총복이 사회를 망치고있다.》,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을 강요하고 핵전략수단들을 끌어들이는 전쟁을 격화시키는 주범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이 사회가 저주스

럽다.》고 분노를 터뜨리였다. 한편 미국대사정법사건을 《총복》세력에 의한것으로 한사코 우기는 피괴매당의 망동을 비난하는 글들도 인터넷에 오르기도했다.

한 인터넷가입자는 미국대사에 대한 징벌의 벌을 받은것처럼 보아하겠다고 한다. 상전과 자기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한다는것이 그만 옆에서 듣기에 모자라지는 소리를 해댄것이다. 가판은 리퍼트 역시 이전에 남조선집권자가 칼세례를 당하고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서 자기도 치료를 받은 적이 큰 인연이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긍정하였다는것을 이야기한다.

필철만 당한 《석고대죄단식》놀음
지난 8일부터 남조선집권자의 냉동생 날린 공화국총재 신동욱이 《리퍼트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느니, 《리퍼트와 그의 가족,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용서를

조롱거리로 된 《총독》과 주구

지금 남조선에서 미국대사정법사건과 관련한 해괴한 정치문화가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있다.

리퍼트에 대한 징벌은 《하늘의 뜻》의 뜻이 있다.》고 말해버림으로써 리퍼트가 하늘의 벌을 받은것처럼 보아하겠다고 한다. 상전과 자기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한다는것이 그만 옆에서 듣기에 모자라지는 소리를 해댄것이다.

가판은 리퍼트 역시 이전에 남조선집권자가 칼세례를 당하고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서 자기도 치료를 받은 적이 큰 인연이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긍정하였다는것을 이야기한다.

결국 상전과 주구가 모두 천벌을 받은 자기들의 꼴을 인정했었다. 리퍼트가 징벌당한 후 《어버린합》의 산송장들과 《고역제천우회》를 비롯한 국우보수계파무리들은 매일과 같이 거기에 떨쳐나선 조롱거리를 내흔들며 기자회견이나, 집회나 하는것들을 벌려놓고있다.

자기를 보수라고 자처하는 인물들까지도 《미국에 미안한것이지만 이 정면은 불가역적이다.》,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침을 뱉었다. 한 사람, 심지어 국가는 신동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석고대죄단식》이라고는 천우에 빨간색물감을 마구 뿌려

자기를 보수라고 자처하는 인물들까지도 《미국에 미안한것이지만 이 정면은 불가역적이다.》,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침을 뱉었다. 한 사람, 심지어 국가는 신동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석고대죄단식》이라고는 천우에 빨간색물감을 마구 뿌려

성조기에 점령당한 서울
리퍼트가 징벌당한 후 《어버린합》의 산송장들과 《고역제천우회》를 비롯한 국우보수계파무리들은 매일과 같이 거기에 떨쳐나선 조롱거리를 내흔들며 기자회견이나, 집회나 하는것들을 벌려놓고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언론들은 《내탓에 서울북편에

아침경에서 이탈된 식민지 《총독》
리퍼트가 입원한 기간 남조선의 집권자와 피괴여야당 대표들을 비롯한 정계인물들, 《국무총리》, 부총리는 물론 별의별 보수세력까지도 무리로 《위로》방문을 하여 문뜩어켜 붙이 일 정도였다

면 되였다. 이를 놓고 남조선의 언론들은 《벌의 벌 수를 대고 다 찾아온다.》, 《도가 넘을대로 넘었다.》, 《리퍼트에게 없던 병까지 생겼구나.》고 야유하고있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리퍼트가 황급히 미국대사관으로 쫓겨나 버리고말았겠는가.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의 신문가들도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비굴한 놀음들을 놓고 미국주변정차도 의아해하고 역겨워할 정도이라고 평하고있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친미사태에 미쳐돌아가는 남조선의 집권세력과 국우보수세당의 망동은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낫을 쫓고 침을 뱉을 역겨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친미사태에 명풍을 걸고있는 피괴보수매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민족의 자주화확립과 평화, 민병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성호